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 및 영향요인

Marital Satisfaction of Expanding Dual-Earner Couple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전공
부 교수 두경자
석 사 유희숙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 Myung Univ.

Associate prof. : Kyung ja, Doo

Master : Hee Sook, Yoo

〈목 차〉

I. 문제제기	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expanding dual-earner couple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The sample consisted of 226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living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One-way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for husbands than wives.
2.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husbands' age, husbands' sex role attitude, wives' occupation, flexibility of wives' work.
3.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husbands' income, husbands' sex role attitude, husbands' participative times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participative time of household labor.

I.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로 우리 나라 여성이 본격적으로 취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른 고용확대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에 비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997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가 될 정도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기영 외, 1998).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정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첫 자녀 출생이후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현상이 가정생활주기의 초기단계동안 지속되다가 중반기 단계에서 만족도가 다시 떨어지고, 가정생활주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로 변화한다(Rollins & Feldman, 1970; Schram, 1979; Lewis & Spanier, 1980). 가정생활주기 중 확대기 가족은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확대기에 있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취업주부는 직장일과 자녀양육, 가정경영 등의 과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시기의 취업주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장일과 자녀양육에 우선적 가치를 두게 되므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다. 남편의 경우에도 가정경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다소 감소하는 면도 있으나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부인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과 부인의 관심이 자신으로부터 자녀에게로 옮겨진데 대한 심리적인 공백감을 경험하며 역할과중으로 신경이 예민해진 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되기 쉽다. 즉 확대기 맞벌이 부부는 자녀 출산 등의 가족수 증가로 결혼생활의 유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따른 불안정한 결혼생활로 인한 외해 가능성의 측면도 있다. 이미 맞벌이 부부가 보편적인 가정유형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결혼불만족 문제는 한 두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자신은 물론 가정의 행복, 나아가 사회의 행복

과 안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직장에 대한 대처능력과 가정 내 적용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박미령, 1987).

이에 본 연구는 확대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부부결속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탐색하여 부부행복 증진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사회적·법적제도이며 공공의 사회적 인정을 포함하는 남녀간의 생활상태를 말한다.(허필숙, 1978) 가정을 중심으로 결혼을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남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의 구성단위로서 하나의 가정을 이룩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갖가지 사회활동을 전개시켜 가며, 나아가 국가를 이룩하는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원경, 1974)이라고 말한다.

만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되어 결혼만족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Burr 등(1979)은 첫째, 만족은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 정도이며, 둘째, 행복 대 불행, 만족 대 불만족,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의 연속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를 토대로 한 여러 학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Hawkins(1968)는 결혼만족도를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였고, Rice(1979)는 개인의 욕구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김인숙, 1988:재인용).

김명자(1977)는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인 정도라 하였고, 유영주(1984)는 결혼의 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

한 주관적 감정내지 일종의 태도로 보았으며 이러한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태도를 가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결혼만족도 관련변인

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조사대상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사노동조력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우선, 연령을 보면, 안동선(1982)은 주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임정빈(1988)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Keith와 Schaft(1983)는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역할과 직업수행간에 긴장을 덜 경험하게 되어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함으로써(장소희, 1994:재인용) 비교적 연령이 낮은 확대기의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부부의 교육수준의 경우, 김은주(1979)는 주부의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유영주(1979)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남편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정우(1980) 역시 결혼의 행복도가 보통이거나 불행한 집단은 대졸의 경우 11.7%를 차지하는데 비해, 고졸 집단의 경우 약 3배(30.3%)에 달하고 있었다.

부부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이동원(1976)은 한국의 취업주부들은 대부분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부담을 지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상호존하는 형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의 직업활동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만족으로 이끈다고 하였다.

부부의 소득에 있어서는 김은주(1979)는 주부의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모두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영주(1979)는 가정경제의 안정이 결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수입이 대체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많을 때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이옥진(1982)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감소되나 남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정혜정(1985)은 자녀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임정빈(1988)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되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막내자녀연령은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정혜정, 1985). Glenn과 Weaver(1978)는 특히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주부에게 더욱 더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사노동조력자의 경우, 정혜정(1985)은 가사노동조력자를 두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조력자가 있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② 직업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직업관련변인에 부부의 직업유통성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였다.

선행 연구들은(최규련, 1993; 이수정, 1997)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배우자간의 직업 지지도를 포함하였고 직업유통성과 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던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변인들을 직업관련변인으로 본 것은 시간제약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근무시간의 형태는 가사노동관리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직업유통성이 많고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가정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윤명희(1985)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한 반면에 고정자(1998)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경미(1995)는 근무시간 보다는 근무시간의 유통성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③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은 성역할 태도이다.

성역할 태도는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박미령, 1987; 강은령, 1989) 남편도 근대적 태도일 때 역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강은령, 1989). 최규련(1984)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근대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남편 자신과 그 배우자인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Pearlins(1981)은 주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 남편과 아들로 하여금 성의 평등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이끈다고 하였다.(장소희, 1994;재인용). 이정련(1982)도 주부가 취업을 했을 경우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며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④ 가사노동참여시간

이정숙(1990)은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도가 부인·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신 외(1996)는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자

(1998)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의 역할을 분담할 때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최규련(1993)은 남편의 참여도가 아내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편의 경우 가사참여를 많이 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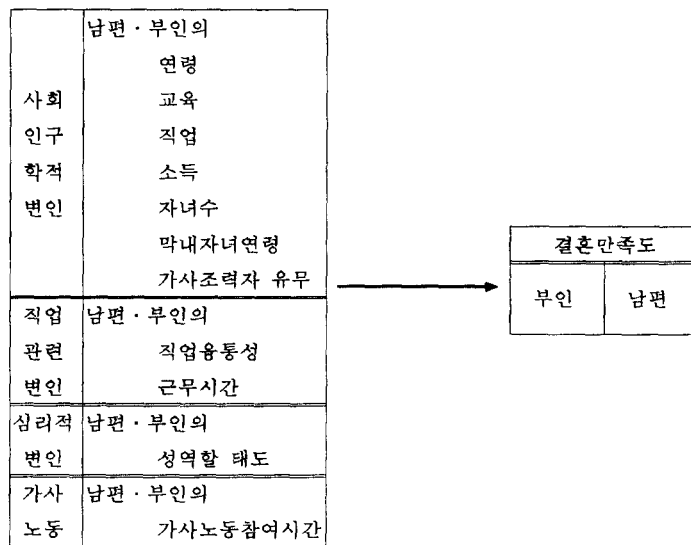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직업관련변인, 심리적 변인, 가사노동참여시간을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 1)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 2)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관련변인, 심리적 변인, 가사노동참여시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2. 조사도구의 구성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대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총 452부(226쌍)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작성하여 부부의 설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설문지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6문항), 직업관련변인(7문항), 심리적변인(7문항),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11문항), 결혼만족도(16문항)이다.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사노동조력자 유무를 조사하였다. 가사노동조력자 유무는 조력자가 없는 경우를 1, 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2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 N=226, 부인 N=226)

변 수	집 단	남편 N(%)	부인 N(%)
연 령	20대	10(4.4)	36(15.6)
	30대	89(39.4)	94(41.6)
	40대	106(46.9)	91(40.3)
	50대 이상	21(9.3)	5(2.2)
학 력	중졸이하	10(4.4)	16(7.1)
	고졸, 전문대졸	84(37.2)	117(51.7)
	대졸이상	132(58.4)	93(41.2)
직 업	노동판매직	16(7.1)	42(18.6)
	자영업	57(25.2)	56(24.8)
	사무직	90(24.8)	61(27.0)
	전문관리직	97(42.9)	67(2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22.1)
	100~150만원미만	37(16.4)	
	150~200만원미만		123(54.4)
	200~250만원미만	113(50.0)	
	250~300만원미만		41(18.2)
	300~350만원미만	60(26.5)	12(5.3)
	350만원이상	16(7.1)	
자녀수	1명		77(34.1)
	2명		116(51.3)
	3명이상		33(14.6)
막내자녀연령	1~6세		99(43.8)
	7~12세		58(25.7)
	13~18세		58(25.7)
	19세이상		11(4.9)
가사노동조력자	유		94(41.6)
	무		132(58.4)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 N=226, 부인 N=226)

변 수	집 단	남편 N(%)	부인 N(%)		
직업유통성	높음	121(53.5)	110(48.7)		
	보통	77(34.1)	73(32.3)		
	낮음	28(12.4)	43(19.5)		
성역할 태도	진보주의적	100(44.2)	161(71.2)		
	보통	117(51.8)	65(28.8)		
	전통적	9(4.0)			
결혼만족도	만족	200(88.5)	200(88.5)		
	보통	25(11.1)	31(13.7)		
	불만족	1(0.4)	4(1.8)		
1일 평균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집 단	N(%)	N(%)	집 단	N(%)
남편 근무 시간	9시간미만	37(16.4)	17(7.5)	5시간미만	40(17.7)
	9~11시간미만	93(41.1)	86(38.1)	5~7시간미만	58(25.7)
	11~13시간미만	61(27.0)	74(32.7)	7~10시간미만	55(24.3)
	13시간이상	35(15.5)	49(21.7)	10시간이상	73(32.3)
부인 근무 시간	8시간미만	40(17.7)	29(12.8)	4시간미만	46(20.4)
	8~10시간미만	106(46.9)	66(29.2)	4~6시간미만	54(23.8)
	10~12시간미만	54(23.9)	96(42.5)	6~9시간미만	80(35.4)
	12시간이상	26(11.5)	35(15.5)	9시간이상	46(20.4)
1일 평균					
남편 가사 참여 시간	집 단	N(%)	부인 가사 참여 시간	집 단	N(%)
	1시간미만	30(13.3)		5시간미만	36(15.9)
	1~3시간미만	125(50.9)		5~8시간미만	87(38.5)
	3~5시간미만	51(22.5)		8~11시간미만	66(29.2)
	5시간이상	30(13.3)		11시간이상	37(16.4)

2) 직업관련변인

직업관련변인은 직업유통성과 근무시간이다. 직업유통성은 출퇴근 시간 유통성, 병가·휴가에 대한 유통성, 근무중 개인시간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에 수행한 근무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통하여 평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의 측정치에 각각 5과 1을 곱하여 합한 후 6로 나누어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하였다.

3)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은 성역할 태도를 알아보는 척도를 통

하여 조사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은 Cronbach $\alpha = .66$, 부인은 Cronbach $\alpha = .61$ 로 나타났다.

4) 가사노동참여시간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측정을 각 가사내용 별로 평일 하루와 휴일 하루에 수행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통하여 평일 중 하루와 일요일 하루의 측정치에 각각 6과 1을 곱하여 합한 후 7로 나누어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였다.

5)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혼만족도의 척도는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 결혼생활의 애로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등 총 16문항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최하 16점부터 최고 80점 까지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은 Cronbach α =.91, 부인은 Cronbach α =.93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사노동참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들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일원분산분석, t-test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결과분석

1)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남편(5점 만점에 3.65)과 부인(5점 만점에 3.58)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중간점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결혼만족도 수준이 중간 정도로 나

<표 2>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
(남편 N=226, 부인 N=226)

영역(문항)	남편 평균(5점만점)	아내 평균(5점만점)
결혼만족도(16문항)	58.33(3.65)	57.34(3.58)

타난 고정자(1998)의 연구보다 높은 수준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편이 부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최규련, 1993;고정자, 199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집단별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 심리적 변인, 가사노동참여시간 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① 남편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연령, 부인의 직업, 남편의 소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 남편의 성역할태도, 자녀수, 가사노동조력자 등이었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인 집단, 남편의 연령에서는 20대 집단, 부인의 직업에서는 전문관리직인 집단, 남편소득이 350만원이상인 집단,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이상인 집단,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인 집단, 자녀수가 1명인 집단, 가사노동조력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령이 젊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결혼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직업, 남편의 소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 남편의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조력자이었다. 부인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집단, 부인의 직업은 전문관리직인 집단, 남편의 소득이 350만원이상인 집단,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5시간이상인 집단,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인 집단, 가사노동조력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부인들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를 가질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남편 및 가사노동조력자의 도움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집단별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남편 N=226, 부인 N=226)

변 수	남편 만족도	부인 만족도	변 수	남편 만족도	부인 만족도
夫연령) 20대	60.70	60.30	夫소득) 150만원미만	57.19	57.54
30대	59.33	58.31	150~250만원미만	57.41	55.79
40대	58.41	56.90	250~350만원미만	59.30	58.92
50대이상	52.62	57.34	350만원이상	63.88	61.94
F값	4.28**	1.58	F값	3.54*	2.86*
夫성역할태도) 진보주의적	60.08	59.35	夫가사노동참여시간)		
보통	57.09	55.93	1시간미만	56.77	51.77
전통적	55.00	53.22	1~3시간미만	57.60	57.52
F값	4.47**	4.46**	3~5시간미만	58.67	58.25
			5시간이상	62.13	60.63
			F값	2.91*	5.02**
婦교육) 초·중졸	58.31	57.19	婦직업) 노동판매직	54.98	53.95
고졸·전문대졸	56.80	55.68	자영업	57.64	56.86
대졸이상	60.25	59.34	사무직	58.41	57.54
F값	4.74**	4.13*	전문관리직	60.94	59.67
			F값	4.97*	3.25*
자녀수) 1명	60.13	58.83	가사노동조력자) 유	59.64	58.89
2명	57.97	56.49	무	57.40	56.23
3명이상	55.39	56.82	t값	104.85*	88.57*
F값	4.18**	1.45			

*p<.05 **p<.01 ***p<.001

3)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관련변인, 심리적 변인, 가사노동참여시간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남편의 연령($\beta = -.18$), 부인의 직업($\beta = .25$), 부인의 직업용통성($\beta = .26$), 남편의 성역할 태도($\beta = .17$)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수록, 부인의 직업용통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일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7%였다. 부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인의 직업지위가 중위직 이상일 때 부인의 결

혼만족도(박미령, 1987)는 물론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직업용통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시간의 용통성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경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일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승주(1988)의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이 근대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는 남편이 부인과 함께 가사와 직업을 병행함에 있어 자신의 진보주의 성향으로 역할갈등을 적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남편의 소득($\beta = .15$), 남편의 성역할 태도($\beta = .20$), 부인의 가사

〈표 4〉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표 (남편 N=226, 부인 N=226)

독립변수	남편			부인		
	b	β	t	b	β	t
夫연령	-2.09	-.18	8.11**			
婦직업	1.85	.25	14.30***			
夫소득				1.74	.15	5.53*
婦직업융통성	.44	.26	15.61***			
夫성역할태도	.35	.17	7.19**	.47	.20	9.69**
婦가사노동시간				-1.61	-.16	6.15*
夫가사노동시간				2.50	.23	12.08***
F값	11.4***			8.44***		
R ²	.17			.13		
D-W	2.0			2.0		

*p<.05 **p<.01 ***p<.001

노동참여시간($\beta = -.16$),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beta = .23$)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일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였다.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수입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유영주(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인식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일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편이 진보주의적 태도일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강은령(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편이 가사참여를 많이 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한경미(1995), 고정자(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부인의 가사노동참여가 적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인의 가사관리부담이 완화되었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편이 부인의 취업상태를 이해하고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부부

간의 갈등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대기 맞벌이 부부 226쌍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 및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는 확대기 맞벌이 부부 모두 선행연구(고정자, 199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편이 부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정생활전반에 걸친 책임감 및 역할 갈등을 부인이 더 경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집단별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는 부부가 공통적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집단, 남편의 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집단,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이상인 집단,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인 집단, 가사노동역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모두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부가 갈등을 겪는 가사노동분담이 원활히 해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남편의 연령·성역할 태도, 부인의 직업·직업용통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고, 남편의 소득·성역할 태도·가사노동참여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남편의 진보주의적 태도, 부인의 시간 압박감의 완화시 남편은 결혼만족감을 인식하며, 부인은 남편의 경제력, 진보주의적인 태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심리적 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주의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결혼만족도에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편이 남녀 평등의식을 가지고 부부가 가정일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부부의 결혼만족감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요약 및 결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확대기 가정의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취업주부 전체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남편의 질문지를 부인을 통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남편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직접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 직업용통성,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취업동기, 배우자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스트레스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리라 본다. 따라서 직업관련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의 영향변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남편의 진보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현대는 점차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부부/비취업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정자(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3) 기승주(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농촌부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5) 김명자(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부의 직업유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은주(1979). 도시 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재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미령(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박용호(1977). 생활지수의 측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5(2), 78-104.
- 10) 박태은(1983).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 11) 안동선(1982). 한국도시주부의 여가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유영주(1979).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4, 1-13.
- 13) _____(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14) 윤명희(1985).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16)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 27, 262-263.
- 17) 이수정(1997).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되 가족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원경(1974). 현대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가정학회지, 49.
- 20) 이정련(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정숙(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변인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정우(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 성취도, 지식 및 생활태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장소희(1994).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성역할인지와 결혼만족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27) _____(1987). 한국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_____(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9)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 47-57.
- 30) 허필숙(1978). 결혼적용에 관한 일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집, 1, 59.
- 31) Blood, R.O. & Wolfe, D.M.(1960). *Husband and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 32) Burr, W.R., G.K. Leigh, R.D. Day & J. Constantine(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ed. W.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New York; The Free Press, 42-110.
- 33) Glenn, N.D. & Weaver, C.N.(1978). A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269-280.
- 34) Hick, M.W. &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4), 553-574.
- 35) Lewis, R.A., & Spainer, G.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268-269.
- 36) _____(1980).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96-110.
- 37) Rollins, B.C.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0-27.
- 38) Scanzoni, J.(1972). *Sexual Bargaining : 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s Hall Inc., 1972., S. R. Jorgensen, op.cit., 825-826.
- 39) Scharm, R.W.(1979).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 A Critique and Propo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13.